확대비율: 120%

全北日報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13면 사람 12.2 x 6.4㎝

전주대 한국고전학硏,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선정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농촌진흥청의 2018년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통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등에 활용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 원이다.

김종표 기자

확대비율: 120%

전북중앙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08면 사람 9.2 x 10.7㎝

전주대 한국고전학硏,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과제명은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사업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확대비율: 100%

새만금일보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03면 종합 15.7 x 15.6㎝

전주대학교 전경사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과제명은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사업이다. 국역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농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구조화 해 DB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사업은 융복합 연구의 모델로 고전 자료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연구진은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김건우·서종태·이정욱,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스마트미디어학과 민정익, 환경생명과학과 이범규, 국어교육과 유경민 교수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원이다.

양병웅기자/ybw0419@naver.com

확대비율: 100%

전북연합신문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04면 교육 18.2 x 12.1㎝

전주대, 고문헌 전통지식 현대적 활용 '앞장'

한국고전학연구소,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쾌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과제명은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사업이다.

국역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농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구조화해 DB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융복합 연구의 모델로, 고전 자료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연구진은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김건우·서종태·이정욱,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스마트미디어학과 민정익, 환경생명과학과 이범규, 국어교육과 유경민 교수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원이다.

앞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에 국내 유일 대형거점연구소로 선정됐다.

또한 율곡정본화사업단, 추안급국안 원문입력 및 DB기반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 국역 50권, 조선시대 중죄인의 공초를 기록한 '추안급국안' 국역 90권, 호남권 문집인 국역 '존재집', '문곡집', '병산집', '한포재집' 등 다양한 고전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향후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기존의 번역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확대비율: 120%

삼남일보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04면 사회 12.8 x 9.2㎝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선정

고문헌 전통지식 활용한 농산업 지역마케팅 활성화 방안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 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제명은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사업이다. 국역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농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구조화하여 DB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사업은 융복합 연구의 모델로, 고전 자료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연구진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김건우·서종태·이정욱,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스마트미디어학과 민정익, 환경생명과학과 이범규, 국어교육과 유경민 교수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 원이다. /한종수 기자

확대비율: 100%

호남제일신문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013면 스포츠·종합 18.7 x 11.5㎝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8년도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제명은 '고문헌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산업 지역 마케팅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 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사업이다.

국역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농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구조화하여 DB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사업은 융복합 연구의 모델로 고전 자료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 연구진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 · 김건우 · 서종태 · 이정욱,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스마트미디어학과 민정익, 환경생명과학과 이범규, 국어교육과 유경민 교수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원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7년 12월에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에 국내 유일 대형거점연구소로 선정됐다.

또한 율곡정본화사업단, 추안급국안 원문입력 및 DB기반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 국역 50권, 조선시대 중죄인의 공초를 기록한 〈추안급국안〉 국역 90권, 호남권 문집인 국역 〈존재집〉, 〈문곡집〉, 〈병산집〉, 〈한포재집〉 등 다양한 고전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향후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기존의 번역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한국학 세계화에 일임하고자 한다.

/김지애 기자